

조선조 종법제 가족주의와 교육경쟁 성격에 관한 사회사적 고찰

강 창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요약》

종법제 가족주의는 교육문화 형성에 큰 분수령이 되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가족주의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와 모의 사회적 지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친손과 외손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 예학의 발달과 양단 그리고 소빙기로 인해 사회적 신분 체계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지배 계층인 양반 사족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가족주의를 도입하였다. 종법제 가족주의는 사회의 가치관, 규범, 관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을 변화시킨 혁명적 기획이었다. 종법제 가족주의로 인해 가문과 문중 중심의 집단적 의식이 한층 강화되었다. 각 문중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생존권적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과거 합격을 통하여 현직 관료를 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문중들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집단적인 교육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문중 간의 교육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수신의 도를 높이기 위한 유교교육은 단지 과거를 위한, 시험을 위한 입신양명적인 세속적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교육경쟁은 지위지향적, 문벌주의적, 상징주의적, 결과주의적 형태를 초래하였다.

주제어 : 종법제, 가족주의, 교육경쟁,

I. 글의 열기

한국 교육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의 하나가 한국의 전통적 교육문화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교육문화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경향성이며, 사회적 집착 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교육문화는 일반적으로 숭문주의(崇

文主義), 입신양명주의(立身揚名主義), 문벌주의(門閥主義), 가족주의(家族主義)로 구분된다. 그 중 가족주의 교육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교육 경쟁은 학생만의 경쟁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족의 사회적 경쟁 형태를 띠고 있다. 자녀의 학력(學歷)을 가족의 사회 계급적 상징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숙(1994, p. 78)의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 가족주의를 동일시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4점 척도 조사에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응답의 평균이 3.05점,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면 부모로서 성공한 것이다’는 응답의 평균이 3.07점,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다’는 응답의 평균이 3.17점으로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교육적 연표인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 등에는 많은 사회적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 집단적으로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주의 교육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족주의 교육문화¹⁾는 시대적·역사적 성격에 따라 교육에 대한 가족의 집착 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가족주의 교육문화의 영향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족주의 교육문화는 종법제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가족주의의 많은 부분이 종법제 가족주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법제 가족주의²⁾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요구된다. 조선 중기에 도입된 종법제 가족주의는 사회의 가치관, 규범, 관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을 변화시켰다. 현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법제(宗法制) 가족주의는 조선 중기에 도입되어 후기에 정착됐으며, 그 역사는 약 25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가족주의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약간 상이하게 변모했으나, 부와 모는 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장·차남의 구별이 없었으며, ‘나’ 중심의 개인에 의한 친속관계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 1) 가족주의 교육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지엽적이고 단편적 수준에 있다. 역사학계에서 가족주의 자체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최재석의 연구를 계기로 상당한 수준이 축적되었지만, 교육문화와 관련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계 역시 가족주의와 교육문화를 직접 관련시킨 연구가 거의 없으며, 설령 있어도 가족주의 교육문화를 사회 현상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종법제 가족주의라는 명칭으로 교육문화와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주의의 정확한 역사적 성격과 종법제 가족주의가 관련된 교육경쟁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야만 한국의 교육경쟁에 대한 역사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2)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장자중심주의의 종법제 가족주의를 일컫는다. 종법제 가족주의는 가족주의라는 용어보다 더욱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족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초점에 따라 그 개념이 매우 달라진다. 가족주의는 장자중심주의가 아닌 국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논의의 엄밀성과 전문성을 위해 종법제 가족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래야만 용어가 주는 의미상의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에 이르러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의해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가족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종법제 가족주의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였다. 종법제 가족주의는 단순한 가족 규범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질서 의식의 근간으로 작용하였다. 종법제 가족주의는 가문과 문중 그리고 족보 인식을 사회적으로 강화시킨 이념적 기준이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 질서를 변화시킨 종법제 가족주의는 교육문화 형성에도 큰 분수령이 되었다. 종법제 가족주의가 모든 사회관계 의식으로 정착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수반하였다³⁾. 교육에 대한 가족 집단적 집착은 이때부터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종법제 가족주의는 교육을 통한 가문과 문중의 사회적 지위 고양에 대한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과거제와 연계된 교육은 개인보다 가문과 문중의 집단적인 차원에서 인식하였다. 자연히 교육경쟁은 가문과 문중에서 생존권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종법제 가족주의는 오늘날 가족주의 교육문화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종법제 가족주의에서 파생된 교육경쟁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⁴⁾는 오늘날의

3) 본 연구는 통시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통시적 방법은 공시적 방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가 역사적으로 성장, 분화, 발전하는 과정에 특징적인 사회적 사실을 중심으로 그 사회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의 가족주의의 특징적 사실을 분석하면서, 종법제 가족주의가 교육경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4) 본 연구는 주로 2차 사료에 의존하였다. 삼국 시대부터 조선 말까지의 1차 사료를 의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사회학의 2차 사료 사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역사학과 사회학은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쪽의 접근 방법에 대해 맥레이(D. Mcrae)는 “사회학은 힘든 작업이 없는 역사학이며, 역사학은 분별없는 사회학”이라고 하였다. 토피취(E. Topitsch)는 사회학 없는 역사학은 맹목적이고, 역사 없는 사회학은 공허하다고 하였다. 서로의 접근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립셋(S. Lipset)은 사회학자들은 불가피하게 2차 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1차 사료를 일일이 비교 분석하는 것은 짧은 인생에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학자는 1차 사료 분석을 역사학자에게 맡기고 2차 사료에 의거해도 좋다고 하였다(신용하 편, 1993, pp. 16~185). 스카치폴(T. Skocpol)은 현실적인 연구 실행의 방법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역사가들로부터 기록의 방법을 빌리거나 역사가들의 저술을 2차 사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한 역사적 기법과 증거는 사회 세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다른 방법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영신 외 역, 1991, p. 440). 사회학자들도 가능하면 1차 사료를 이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1차 사료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철저한 문헌 고찰과 비교 검토를 통해 사용한 2차 사료의 타당성 여부이다. 2차 사료가 타당성이 없으면 사회학적 해석 자체가 문제시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회학적 해석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료를 사용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료가 얼마나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연구에서 2차 사료를 사용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2차 사료의 타당성 여부와 어떤 해석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회학적으로 타당한 2차 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학문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차 사료는 해당 학계에서 비교적 검증되어 통용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가족주의 교육문화를 이해하는 인식 기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 교육의 사회적 실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이념적 해석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종법제 가족주의의 형성과 특성

1. 가족주의의 대두

삼국 시대에는 씨족의 뿌리인 성(姓)이 각국별로 10여 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금의 성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당시의 풍속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자유혼과 연애혼이 성행하여 풍속이 음란하고 유녀가 많았으며 일부일처제가 주류였다. 혼인은 신랑이 신부 측에서 마련한 서옥(婿屋)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아이를 낳아 다시 친가로 돌아오는 솔서혼(率婿婚) 형태를 따랐으며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 신라 역시 연애혼이 성행하였으며 여성이 제주(祭主)와 여왕의 지위에 오른 것은 여성의 지위가 높은 것을 암시한다. 특히 아들과 사위, 내손(內孫)과 외손(外孫)을 거의 차별하지 않았으며, 결혼 형태도 고구려와 비슷하게 여자 집에 살다가 자녀가 성장한 다음 남자 집에 데려오는 서류부가(婿留婦家)의 생활을 하였다(최재석, 1996, pp. 41~43). 신라 시대는 원칙적으로 동성불혼(同姓不婚)을 지향하였으나, 왕실에서는 근친혼(近親婚)이 이루어졌으며, 중대부터 친족공동체가 서서히 분화하여 소가족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와 신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었으며, 친가(親家)와 외가(外家)를 구분하지 않는 친족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 시대는 삼국 시대와 비슷한 가족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주의의 특징은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없는 양측적 친속관계(兩側的親屬關係)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양측적 친속관계 형태는 중국의 장자 중심의 부계적 친속관계와 달리 부(父)와 모(母)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고려 시대는 본족(本族), 외족(外族), 처족(妻族)의 부계 친족 집단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부측, 모측, 처측의 친속으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각 개인들은 친족 집단의 배타성과 폐쇄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측적 친속은 집단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입장의 합치라는 부가적 요인에 의해서만 족당 세력으로 결집됐다. 이러한 족당 세력은 집단적 작용을 하지만 그 토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관계가 기준이 된다(노명호, 1995, pp. 131~133). 친속관계는 나 중심의 개인적 관계이므로 아버지와 형제간에도 친속이 달랐다. 이런 이유로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에서도 족당(族黨) 세력은 가까운 근친일수록 족당으로 결집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삼촌과 사촌 간은 물론 형제간에도 동일 세력을 이루지 않았다.

고려 시대의 혼인은 일정 기간 처가살이를 하는 술서혼 형태를 유지하였다. 처가살이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결혼과 동시에 부모 곁을 떠나 처향(妻鄉)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양측적 친속관계로 친가와 외가의 구분과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실제, 친가와 외가의 차별이 없어서 사위를 친자식처럼 여겼으며, 처의 부모를 평생 동안 봉양하거나 처의 고향으로 본관을 옮기기도 하였다. 사위와 외손이 처가와 외가에서 생활을 하여 처가와 외가에 대한 은의가 돈독하였으며 처가를 자기 집처럼 장인을 아버지, 장모를 어머니로 호칭하면서 부모처럼 섬겼다고 한다. 따라서 딸을 결혼시키면 아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도 분가시키지 않고 사위와 함께 살았다(최재석, 1994, pp. 248~253).

고려 시대에 친가와 외가의 구별이 없고, 부와 모가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적인 사회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재산 상속에서 남녀 차별이 없는 균분상속제(均分相續制)를 지향하였다. 재산 상속에서 남녀 뿐만 아니라 장·차남 간에도 차별이 거의 없었다. 고려 시대는 재산 및 노비뿐만 아니라 왕손이나 국가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작위인 봉작(封爵)의 상속과 음직 상속에서도 장·차남을 비롯하여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뿐만 아니라 친손과 외손(외손의 외손도 포함) 간에도 차별이 거의 없었다(최재석, 1996, p. 327). 심지어 상례(喪禮) 절차에서도 아들과 딸이 없는 경우, 상례 주제는 남편의 조카나 친정의 조카가 되기도 하며, 아들이 없으면 외손이 상례를 관장하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었다. 심지어 여자가 호주(戶主)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허홍식(1981, p. 299)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 시대의 호주 단자(戶主單子)에는 부처(夫妻)가 생존할 경우 부(夫)가 호주가 되는 우선권이 있고, 다음으로 처(妻)가 호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모(母)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그 자식 중의 연장자가 호주가 된 예는 없었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호주가 될 자격이 있었다. 또한 호주 단자에는 호주의 형제나 질(姪), 자매(姉妹), 백부(伯父), 숙부(叔父) 등의 부계 친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처의 부모와 사위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 역시 근친혼(近親婚)과 동성혼(同性婚)이 성행하였다. 심지어 자녀를 낳지 못한 처가의 양녀(養女)를 길러 남편의 첩으로 삼거나, 처가 죽으면 처제(妻弟)와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가(再嫁) 역시 비교적 보편화된 현상이었다. 재가는 주로 남편과 사별한 다음 이루어졌으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 재가해서 전부(前夫)가 남긴 자식을 보호하며 성장시키는 행동을 과거(寡居)에 못지않는 여인의 덕목으로 제시하고, 조선 초기의 족보에는 전부와 후부를 꺼리지 않고 수록하였다(허홍식, 1992, p. 51).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적장자 중심의 족보 체계와 많은 차이점을 점을 볼 수 있다. 족보는 부와 모, 아들과 딸, 친손과 외손(외손의 외손을 포함)을 거의 차별하지 않았으며, 기재 방식도 출생 순위와 연령순으로 따랐다. 양측적 친속관계 중심의 족보 기재 방식은 조선 후기의 족보와 그 계통 체계부터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2. 종법제 가족주의의 형성 배경

조선 초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조선 왕조는 위계적 원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적 교화를 위해 소학(小學)과 삼강오륜(三綱五倫) 그리고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 당시는 성리학(性理學)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유·불·선을 공유하고 있었다. 조선 왕조는 적장자 중심의 주자가례를 사회 원리로 삼았으나 고려 시대의 가족주의 문화를 일시에 단절하기가 어려웠다. 조선 왕조의 강력한 교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층 역시 전통적인 과거 문화에 의존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양측적 친속관계가 이어졌으며 대체로 고려 시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와 모,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친손과 외손의 차별이 없는 친속관계를 유지하였다. 1467년에 편찬된 ‘안동권씨화보’에서는 딸들을 그들 각각의 자손들과 함께(그들 남편 이름 아래)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외손은 약 9천 명이 올라 있어 380명에 불과한 친손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한다(Deuchler, 2003, p. 231). 재산 상속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는 철저한 균분상속제⁵⁾를 유지하였다.

제사 상속에서도 주자가례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의 상제(喪祭)는 불교의 제(祭)를 따른 화장이 성행하였다. 제사 상속에도 양측적 친속관계에 따라 친가와 외가, 아들과 딸의 차등이 없는 윤회봉사(輪回奉祀)가 중심이었다. 상례 주관이 장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있었으며 외손이 담당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지배층인 사대부조차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주관하였으며, 출가외인이나 그의 아들이 대신 제사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혼인 형태에도 조선 초기의 왕권은 종법제적 친영제(親迎制)를 강조하였으나, 사회 풍습은 솔서혼을 따르고 있었다. 외조부의 은의가 동성 친족 못지않았으며 처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처부모는 사위를 친자식처럼 여긴 사회 풍습에서 친영제는 정착하기 매우 어려웠다. 실제 태종 7년에 왕실에서 친영을 행하였으나, 당시 사대부에서는 이 친영을 피하려고 연소한 처녀들을 모두 혼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재가(再嫁) 역시 조선 중기까지 사대부 계층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재가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자 손(孫)은 문과의 생·진시에도 응시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법률상 강하게 규제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사대부 계층에서는 재가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성종(成宗) 대의 중신들도 재가는 용인하고 삼가(三嫁)만을 처벌하는 입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기도 하였다(최재석

5)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도 적처(嫡妻)의 소생일 경우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분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게만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 주게 하였다. 오히려 조정은 자녀균분상속제를 보호해 주었다. 또한 혼인 후에도 부인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부인이 죽었을 경우 자녀에게 균분상속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 친정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인이 사망한 후, 남편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남편이 재혼을 하면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졌다(교수신문, 2001. 9. 24).

1994, pp. 259~260). 족보의 기록에서도 양측적 친속관계를 유지하여 부와 모, 아들과 딸, 친손과 외손의 차별이 없었으며 연령별로 기재하는 방식이 주류였다. 이런 양측적 친속관계의 관습은 조선 중기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중기인 17세기 중엽부터는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적 사회 질서가 도입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부계 중심의 친족관계로 정착됐다. 양측적 친속관계와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적 질서는 전혀 다른 사회 체제를 추구하였다.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적 질서는 가치관, 규범, 관습, 일상생활 의식 등의 인간관계 양식의 전반과 주거 공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였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적 질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의해 기인하였다. 먼저 종법제적 질서의 이념적 근간인 예학(禮學)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되었지만 그 학문적 수준은 매우 낮았다. 조선 중기의 사화(士禍)를 겪으면서 처사(處士)로 남아 학문에만 매진한 일군의 사람과 학자들에 의해 성리학의 예제(禮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으로 예학서를 집중 출간할 수 있었다. 예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적 질서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법치(法治)보다 예치(禮治)가 앞선 강력한 예치주의(禮治主義) 사회로 전환하게 되어, 17세기를 예학시대(禮學時代)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종법제적 질서가 도입된 직접적인 정치·사회적 배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끔찍한 자연재해인 소빙기(小氷期)를 겪으면서 전국이 참혹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선조실록(宣祖實錄)에서는 ‘굶어 죽은 시체가 길을 메웠으며, 사람들은 인육을 먹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길바닥에 굶어 죽은 시체를 칼로 도려내어 한 곳도 남아 있지 않았을 뿐더러 혹은 산 사람을 도살하여 장위(腸胃)와 뇌수(腦髓)까지 모두 먹었다고 한다. 거기에다 소빙기로 인한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의 자연재해는 다른 시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가공스러운 것이었다(이태진, 1998, pp. 334~335).

이러한 참혹한 상황은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들었으며 동시에 그동안 누적된 신분적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신분혼효(身分混淆)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황은 신분 질서의 새로운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양반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져 양반 간에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다. 새로운 양반층이 증가함에 따라 양반 간에도 계급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양반도 대가(大家)와 명가(名家)가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양반은 향반(鄕班)이나 잔반(殘班)으로 전락하였다. 향촌 사회에서는 요호부민층으로 구성된 신향(新鄕)과 구향(舊鄕)이 향권(鄕權)을 둘러싸고 치열한 향전(鄕戰)을 하고 있었다. 향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양반과 소빙기의 경제적 피폐화와 신분적 지위 유지를 위한 생

존권 차원에서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지배계층인 사족은 자신의 신분적 이점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불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계서적(階序的)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종법제 질서는 생존권 차원에서도 절박한 것이었다. 양란과 소빙기로 인해 양반 사족은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 시기의 균분상속제는 사족들의 재산이 분산됨으로써 생산력의 저하와 생활의 궁핍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세기 중엽 이후 현실적으로 종가(宗家)만이라도 존속시키려는 장자 중심의 상속제로 전환하였다. 종가 중심의 재산 집중화를 통해 족적 결속력을 강화시켜 기존의 사회경제적 특권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1995). 즉 사족들의 영세화를 촉진시켜 신분을 하락시키는 균분상속제보다 적장자 중심의 재산 집중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촌 사회에서는 향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사족들은 신분적 불안이 가중되었다. 사족들은 족적 결합을 통해 신분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향촌 사회를 이탈하여 동성촌(同姓村)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성촌의 발달은 적장자 중심의 족적 결합을 강화시켰으며 문중(門中)의 발달로 이어졌다. 적장자 중심의 문중의 발달은 문중 간에 신분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각 문중은 사회적으로는 신분적 지위의 과시와 내부적으로는 족적 결합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원(書院)과 사우(祠宇)의 경쟁적 건립과 사회적 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족보를 간행하였다. 이 시기부터 부계 중심의 족적 결합을 상징하는 족보가 집중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17세기 중엽의 종법제적 사회 질서의 도입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한 사족들의 균열과 경제적 피폐화로 인한 신분 불안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 종법제 가족주의는 사족들의 신분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생존권적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과거의 개인 중심의 양측적 친속 관계는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가족주의로 인해 가문과 문중 중심의 집단적 친속 관계가 확립되었다.

3. 종법제 가족주의의 사회사적 특성

종법제는 은대(殷代)에 씨족 중심의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상속제가 부자 계승으로 변화되어 주(周) 나라의 왕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종법제는 적장자 중심의 부계 혈친 종족을 규정한 가족 제도이다. 종법제는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자(朱子)의 성리학에 의해 이론적 체계를 집대성할 수 있었다. 성리학이 강조하는 종법제는 적장자 계승(嫡長子繼承)과 종자 계승(宗子繼承)이 이념적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적통(嫡統)이 단절되었을 때 혈통(血統)보다 종

통(宗統)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주 나라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지두현, 1998, pp. 116~120). 종(宗)은 그 내부에 다수의 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통에 따라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한다.

대종은 종족 내에서 장자 출신의 족이 종가(宗家)를 형성하여, 무한히 계승한다는 백세불천종(百世不遷宗)의 원칙에 따른다. 소종은 대종에서 분파된 것으로 적장자의 동생인 별자(別子)가 하나의 종을 세운 것으로 5세(五世)까지 친족 관계를 구성한다. 대종의 종가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다른 족인들을 통괄하였다. 족인 가운데 종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심지어 전쟁 시에는 족인을 통솔하여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종법제는 처음에는 왕실에서 시작하였으나 차츰 사대부 계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봉건사회에서 혈연 중심의 강력한 신분적 질서 체제를 형성하는 이념적 근간이 되었다.

중국의 고대 사회는 혈통을 기반으로 한 적장자 중심의 신분적 위계질서가 형성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삼국 시대에도 종법제를 도입하였지만, 가족 내에 아들과 친손과 외손, 장남과 차남의 차별이 중국에 비해 훨씬 적었다. 이러한 가족주의 형태는 조선 초기까지 이어진다. 종법제 가족주의 이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은 고려 말부터이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되어 종법제 가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 조선 초기에,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표방한 왕권은 자연히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양측적 친속관계의 가족주의적 전통을 일시에 단절시킬 수가 없었다. 즉 조선 초기에는 국법에 따라 경(卿), 대부(大夫)로부터 서인들에 이르기까지 주자가례의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 절차를 따르도록 강요하였으나, 가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100집에 한두 집도 안 될 정도로 불교식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최재석, 1994, p. 280).

양측적 친속관계에서 종법제적 친속관계의 변화는 단순한 가족주의 질서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 규범, 풍습, 일상생활 의식까지의 변화 요구로 인하여 거의 혁명적 수준에 가까울 정도였다. 즉 혼인 형태는 술서혼에서 친영제, 재산 상속은 남녀균분제에서 적장자 중심, 제사 상속은 윤회봉사에서 적장자 중심으로의 변화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적 의식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정치·사회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종법제는 사회질서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성리학적 교화 노력은 처음부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왕권 강화 차원에서 조선 왕조는 성리학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며, 조선 중기에 들어 상당한 학문적 수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예학(禮學)에 대한 깊은 이해는 종법제 가족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이념적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양란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폐해와 더불어 발생한 소빙기의 거대한 자연적 재해는 기존의 사회 신분적 질서의 동요와 신분혼효 현상을 촉진시켰다. 사족 중심의 지배계층은 생존권 차원에서 신분적 불안을 느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수직

적 위계질서를 반영한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질서를 요구하였다.

남녀균분된 재산 상속은 영세화를 초래하여 문중의 구성원들이 상호 공멸할 수 있다는 지배계층의 사회적 위기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볼 때, 적장자 중심의 재산 집중화는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방어와 관련이 있었다. 적장자 중심의 경제력의 집중은 가족의 집단적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중의 발달로 이어졌다. 종법제를 기반으로 한 문중은 족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움직였으며, 족적 결속력은 문중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문중에서 적장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이자, 문중의 사회적 상징이었다. 이에 대해 윤사순(2001, p. 57)은 문중의 장손과 종손은 단순히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집단의 교주와 비견될 수 있으며 그들 가문의 체통은 생명원과 같았다고 하였다. 개인은 문중의 사회적 부속물에 불과하고 문중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문중은 친족과 직접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른 영역에서도 인간관계의 행동 방식을 강력하게 규정한다(이중서, 2003, p. 7).

개인의 지위는 혈족 집단인 문중의 사회적 위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문중 간에 사회적 지위 경쟁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문중은 가묘, 사우, 서원의 건립과 족보 편찬을 통해 혈족의 상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문중의 이러한 상징물들은 단순히 지위 과시와 위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권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의 향촌에서는 반격(班格)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양반 가문이라도 벼슬 관계나 학적 기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었다(정만조, 1998, p. 95).

그래서 사족들은 그들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족보를 만들거나 서원, 사우, 누정(樓亭), 묘비 등을 세우는가 하면 종회, 종계, 종중 부락을 만들어 종중 재산을 모았다. 개인은 몰락해도 종중은 지켜 양반 신분을 보존하고자 하였다(한우근·이성무 편저, 1991, p. 202). 문중의 이런 경쟁은 법의 차원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정궁식(2003, p. 52)에 의하면, 가묘(家廟)에서 영구히 제사를 지내는 불천위에 대해 경국대전(經國大典)은 공신(功臣)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 후기 불천위는 향촌에서 가문의 위상을 상징하면서 친족 결합의 중요한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각 가문에서는 공신만이 아니라 입향조(入鄕祖), 현관(顯官), 학자 등을 경쟁적으로 불천위로 삼았다. 이런 풍조는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단지 사회적으로는 편법으로 용인되었다고 한다.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가족주의는 각 문중들에게 생존권적 차원의 절박한 입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촉진시켰다. 종법제 사회 질서는 개인보다 가족 집단을 우선시하고,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심지어 주거 공간의 개념까지 바꾸어 놓았다. 종법제 질서에 의한 주거 공간의 핵심은 가묘(家廟)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가묘는 집안의 중심처이며 가장 신성한 공간인 양(陽)의 방향인 동쪽 위치가 정해지면, 다른 주거 공간

의 부분이 결정된다. 주택은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남녀 구별, 학문 수련의 장으로 공간 구성의 원칙을 삼는다. 가정의 영역인 사랑채는 안채를 보호하고 노비들을 감시하고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대청은 가정의례의 중심 공간으로 제실의 용도로 설치되었다. 조선 후기 주택에서는 안방과 건넌방, 윗방과 아랫방이 대청을 중심으로 고부간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있다. 남자들의 영역인 사랑채는 큰 사랑과 작은 사랑으로 부자간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있다(강영환, 1998, pp. 634~642). 주거 공간은 종법제적 인간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의식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종법제 가족주의는 가족이라는 기초 생활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통치 원리로 작용하였다. 종법제 가족주의는 적장자 중심의 문중 개념을 발전시키고, 사회 통치와 더불어 일상생활 의식의 이념적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종법제 가족주의는 인간관계 의식의 강력한 지배를 통해, 문중의 가족 집단적 경쟁을 촉발시켰다.

Ⅲ. 종법제 가족주의와 교육경쟁

종법제 가족주의가 도입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중의 가족 집단적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경쟁은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통로는 과거 합격이었다. 설령 과거 합격을 못하면, 사회적으로 양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교를 습득해야만 했다. 유교는 양반의 사회적 동류감과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과거제와 유교 습득은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교육경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경쟁은 근원적으로 교육경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경쟁은 과거합격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의 경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경쟁은 교육경쟁이며 사회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경쟁을 분석하면 교육경쟁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지위지향적 교육경쟁

조선 시대의 관료는 지위, 권력, 부를 일시에 획득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다. 특히 객관적 능력을 검증하는 과거제를 거친 관료는 사회적으로 더욱 공인받을 수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 과거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의 합법적인 거의 유일한 제도적 수단이었다. 과거제를 통한 입신양명은 교육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교육경쟁의 사회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입신양명은 천리(天理)를 깨달아 사회적으로 인(仁)을 실현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부모를 영광되게 한다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

다. 그러나 입신양명은 과거제와 결부되면서 세속적인 의미인 출세지향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과거 합격증은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는 상징적이며, 실질적 보증서였기 때문이다. 과거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지위지향적 교육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유교교육은 수신(修身)을 통해 인(仁)을 깨달아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유교와 과거제가 연계되면서, 수신을 위한 유교 학문은 관료 지위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획득하기 위한 세속적인 도구로 이용됐다. 즉 학문을 한다는 것은 곧 양반 신분층을 유지해 주고 동시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또 문치주의(文治主義) 사회에서 관료로 출세하는 것은 학문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육열은 무엇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p. 8). 이 점에 대해 중국과 같이 조선 시대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서는 ‘어진 이를 구하는 방법을 오로지 과거에만 의지하게 되어, 이 길로 출세하지 않으면 인재가 아니라 일컬어 손가락질하고 으레 속된 벼슬아치로 대우한다’고 하였다. 인종실록(仁宗實錄)에서는 ‘지금의 학부형이 된 자들은 자체가 겨우 말귀를 알아듣는 것을 보면 곧 장구(章句)의 학문과 문구를 꾸미는 글을 가르치고…사모하는 것은 과거급제요, 바라는 것은 부귀’라고 하였다(이원재, 2001, pp. 19~79). 또한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상소문에 의하면 ‘과장(科場)의 글들을 기록하고 외어서 요행히 벼슬길에 오름을 바라는 것에 휩쓸려 기풍을 이루어서, 그 사이에 혹 성현의 글을 부지런히 읽는 이가 있으면 동류들이 비웃으니 학업을 폐기하고 지취(志趣)가 부박(浮薄)함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손인수, 1999, pp. 75). 율곡 이이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개탄하였다. 그에 의하면 천리(天理)를 통하는 학문과 인간에 뛰어난 행실이 있어도 과거가 아니면 출세하여 도(道)를 행할 수 없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고 형이 아우에게 권하는 것이 과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선비 풍습이 버려짐이 과거 때문이라고 하였다(박의수, 1997, p. 23).

이러한 현상은 과거제의 사회적 혜택이 많아짐에 따라, 유교교육은 과거제를 통해 사회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위지향적 교육경쟁의 형태로 변모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문과 문중 간의 사회적 지위 경쟁은 과거제를 통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신분혼효로 인한 양반 인구의 증가는 양반 간에도 계급적 차별이 생기게 되었다. 양반이라도 계급적 지위가 달랐으며, 어떤 양반은 아주 한미한 가문으로 전락되어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양반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 합격이 사회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었다. 과거 합격증은 가문과 문중의 사회적 지위의 공인서이며 가장 확실한 신분 자격증이었다. 최봉영(1996, pp. 82~84)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효(孝)의 핵심은 부모가 아니라 가문의 영속적인 유지, 확대에 있었다. 가문 간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양반은 유능한 관료후보생의 양성을 위해 자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교육열은 개인적 학구열이 아니라 가문적 교육열이고, 양명(揚名)도 개인적 성취가 아니고

가문적 성취였다. 양반들은 가문의 승패와 사활을 걸고 교육과 출세에 임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과거 합격은 개인보다 가문이 집단적으로 향유하는 영광이었다. 과거 합격을 통해 관료가 되지 못하면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은 저하되고 생존권적 위협을 받을 수가 있었다. 4대 조상으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과거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에서 탈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문중의 영광과 명예도 자신의 문중에 과거 급제자가 몇 명인가에 달려 있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은 문과의 합격패인 홍패는 두 자(尺)에 지나지 않으나 온갖 물건이 들어오는 돈 자루라 하였다. 이성무(1973, pp. 50~51)에 의하면 가세(家勢)와 문지(門地)는 조상의 관직과의 거리 관계에 의해 정해지며, 관직은 양반의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요소이므로 양반은 관직을 얻기 위하여 과거시험 준비에 전심(專心)을 다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중에 재능이 있는 자가 있으면 과거 합격을 위해 집단적인 투자를 하였다. 특히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은 것은 개인의 영광인 동시에 가문의 영광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양반들은 자제에게 과거 준비에 열중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평생 동안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유망한 인재가 있으면 종중(宗中)에서 교육시키기도 하였다.

2. 문벌주의적 교육경쟁

문벌(門閥)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를 독점하는 세력인 최고 특권층에 해당한다. 문벌은 가문 중심의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씨족 중심의 집단적 세력이다. 문벌은 시대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급증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문벌이 비교적 심하지 않았으나, 양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제한된 관직을 독점하기 위한 문벌이 작용하게 되었다. 문벌화 경향의 심화는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도입과 신분혼효 등의 정치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중기 이후, 경제적 피폐화로 인해 양반의 계급적 분화가 심화되어, 신분적 지위의 유지와 독점을 위해 문중 중심의 사회적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문벌주의는 문중 중심의 폐쇄적 연대 의식을 통해 사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실학자 유수원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군공, 납속, 관작(官爵) 매수, 족보 위조 등을 통하여 양반 호수가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정계는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문벌 양반=별열이 아니면 고위 양반직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왕실과 자기들끼리만 혼인을 통하고 세관·세록의 특권을 누리면서 양반 청요직을 독차지하였다고 한다(한우근·이성무, 1991, p. 215). 또한 조선 후기, 양반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과거 배출 급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관(分館)뿐만 아니라 청요직에도 문벌이 작용하였다. 실제 인사고과 성적에도 문벌이 작용하여 통정권(通淸權)을 가진 것도 문벌 양반이며 임면권(任免權)을 가진 것도 문

별 양반이었다고 한다(이성무, 1976, pp. 118~120).

특히 17세기 이후 문벌주의가 가중되면서 최고 특권층이며, 실질적인 집권 세력인 별열(閥) 가문이 대두되었다. 별열 가문은 문벌화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세습할 수 있지만, 관료 배출은 필수적이었다. 관료는 별열 가문의 정치·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별열 가문은 3세대에 걸쳐서 각 세대마다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관인을 배출하면서 부(父), 조(祖), 증조(曾祖) 가운데 1인이 반드시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별열은 3세대 6촌 범위 내에서 각 세대마다 반드시 당상관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다(차장섭, 1997, pp. 26~48). 그러나 별열 가문의 자손도 음서(蔭敍)에 의해 정7품까지 제수받아 관인이 될 수 있었지만, 중앙의 핵심 관직에 제대로 등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음서에 의한 관료는 사회적 정당성을 공인받기 어려웠지만, 과거 합격을 통해 가문의 능력에 대한 객관성과 합법성을 사회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다. 별열 가문이 과거제에 강하게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 점은 고려 시대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고려 시대에 특권 귀족층이 되기 위해서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3대 이상 배출해야만 문지(門地)를 세울 수 있고 지위를 세습할 수 있었다(박용운, 1980, pp. 311~314). 세족층에게는 과거 합격만이 가업(家業)의 최고 목표였으며, 고려 후기에 들면서 대부분의 세족 가문들은 과거 합격을 통해 관료를 배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도입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고려 시대의 권문 세족같이 조선 후기의 별열 가문도 과거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차장섭(1997, p. 67)에 의하면 별열 자체의 공부 목적은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문과(文科)에 합격하지 못하면, 무과(武科)에 응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음서로 진출하였다. 음서로 진출하여도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정치·사회적 권력을 독점한 문벌 가문들도 과거 합격은 생존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문벌 가문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있는 사회적 인증서는 과거 합격증이었기 때문이다. 이점은 음서(蔭敍)에 의해 긴급한 당상관(堂上官)이 다시 과거에 합격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징적 차원에서 사회적 공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문벌 가문의 과거 공부 역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 불과하였다. 정두희(2001, p. 11)에 의하면 과거 제도는 문벌의 사회적 특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으며, 수신(修身)을 통해 치국(治國)의 도(導)를 이루겠다는 유교 이념은 타락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고 한다. 문벌 가문 역시, 사회적 경쟁에서 여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문벌 가문들은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학을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적 도구로 이용했다.

결국 문벌 가문에 있어서 유학의 교육목적은 인(仁)의 사회적 실현보다는 과거 합격의 세속적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문벌 가문은 과거 합격을 통해 가문의 사회적 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생존권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즉 문벌 가문들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권력을 바탕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즉 문벌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제를 통한 관료의 배출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관료가 되기 위한 과거경쟁은 생존권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문벌주의 교육경쟁은 유학의 수신(修身)을 통한 인(仁)의 실현보다는 정치·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속적 경쟁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3. 상징주의적 교육경쟁

조선조 종법제 가족주의가 도입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회 현상 중의 하나는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위세 경쟁이다.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는 씨족 중심의 문중을 결속시켰고, 문중은 상징적 위세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상징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 권력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드리야르(J. Baudrillard)에 의하면 기호의 체계 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호는 사회의 위계화된 질서에서 신분과 지위의 위세를 나타내는 차별화된 표시이다. 권력의 속성을 지닌 상징은 암암리에 지배적 가치에 연결되어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규정한다. 따라서 부르디외(P. Bourdieu)는 상징은 그 자체가 권력이라고 하였다. 상징적 행위는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종법제의 도입은 문중 간에 사회적 지위를 위한 상징적 경쟁을 촉진시켰다. 각 문중은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서원, 가묘, 사우 등의 상징물들을 경쟁적으로 건립하였다. 이러한 상징물들이 모시는 공신, 현관, 학자의 지명도에 따라 문중의 사회적 위세가 달랐다. 개인은 문중의 부속물이고 문중의 지위에 따라 개인의 지위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문중의 상징적 노력은 가열되었다. 앞서 논의했지만, 가묘에 공신, 현관(顯官), 학자 등을 모시는 것은 경국대전과 어긋난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문중의 입장은 생존권 차원에서 상징화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족보 편찬의 상징화는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조선 후기의 족보는 불분명한 씨족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 초기까지 무성층(無姓層)이 많았다. 그리고 조선 초기까지 양측적 친속관계에 의해 족보 체계로 구성됐기 때문에, 적장자 중심의 족보 체계와 그 계통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조선 초기까지 편찬된 족보의 수는 많지 않아, 후기 족보 편찬의 종적 근거가 미약하였다. 조선 후기의 족보 편찬은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의 족보는 비록 단순한 상징체에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편찬됐으며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족보는 종족을 상징하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사회에서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 성격을 지닌 중요한 문서였다. 즉 조선

후기에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軍役)을 지는 사회적 차별이 심하였다. 족보에 기재되면 상민은 양역을 면하고 천인도 양반 행세가 가능하였다. 양반들은 개인적인 미움으로 인해 족보에서 이름에 삭제되어, 양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상민이 부담하는 군역을 지기도 하였다. 반대로 환부역조(換父易祖)하여 타인의 족보에 투탁하거나 위조함으로써 군역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송찬식, 1999, pp. 57~59). 족보는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공적이며, 객관적 인증서였다. 족보에 얼마나 훌륭한 현조(顯祖)를 모시느냐에 따라 문중의 우월성이 결정됐다. 문중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족보 편찬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승(家乘)과 족보가 편찬될 때, 조상의 세계를 소급하고 관직을 과장하고 명조를 내세우는 풍조가 만연하였다(이수진, 2003, p. 5).

문중의 상징화 경쟁은 내부적으로는 종족 결합을 강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중의 상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는 과거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됐다. 가묘의 조상에서 과거 합격의 관료적 지위는 문중의 상징적인 위세를 확실히 보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과거 합격을 통한 관료는 문중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당성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합격의 상징성은 사회적 인증에서 중요한 자격증이였다. 구체적으로 이미 당상관에 올랐거나 종실(宗室)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도 문과에 응시하여 사회적인 인정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였다. 과거제의 상징성으로 인해 사회 기저에는 음서 출신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열 자제들이 손쉽게 관료가 될 수 있는 데도 과거제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합격증은 혈통에 대한 공적인 사회 증명서이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준거로 이용되었다. 과거 합격증은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보증하는 확실한 상징적 보증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관직과 관계없으며 학위 신분층에 불과한 진사와 생원이 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과거제가 갖는 상징성으로 인한 문중의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서는 과거 합격증이였다. 진사와 생원은 상징적 자격증에 지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배계층과 유교적 동류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가 공인한 사족 자격증과 같았다. 진사와 생원은 양반의 지배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상징적 학위 신분에 불과한 진사와 생원이 되기 위한 노력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는 관직이 부여되지 않는 진사와 생원이 남발되어 학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과거와 무관한 유학(幼學)의 상징적 위치도 중요하였다. 유학(幼學)은 양반을 나타내는 상징적 지위에 불과하지만, 양반 신분은 달랐다. 양반은 많은 사회적 혜택과 앞으로 관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은 생원, 진사와 함께 국가가 사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직을 수여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최진옥, 1998, pp. 95). 진사와 생원

보다 그 지위가 더 낮은 유학(幼學)의 경우도 상징성이 매우 컸었다. 유학의 지위는 매우 낮았지만 지배 사족이 될 수 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일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양반들은 유교적 동류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죽어서도 묘비명에 學生○○○之墓로 표기하였다. 양반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죽어서도 상징화 경쟁을 할 정도로 처절한 노력을 하였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 들면, 양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신분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응시 자체가 양반 신분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석중(1992, p. 256)에 의하면 과거 응시는 합격·불합격이 문제되기 이전에 과거 응시 자체가 양반 신분을 입증하는 방편이 되므로 그 자체를 중요시하였다고 한다. 정조 때 연간 15만 명에 가까운 과거 응시자가 몰려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정재결(1999, p. 8)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서울에서는 과거를 보기 위해 문과 응시자가 11만 명, 무과 응시자가 3만 5천 명 등 무려 14만 5천 명의 응시자들이 모였다고 한다. 당시 서울의 인구가 19만 명이 되고 전국 인구가 740만 명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하였다.

비록 엄청난 인원이 과거에 응시에 하였지만, 모칭유학(冒稱幼學) 급증으로 인한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유학 교육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그들 상당수는 단지 과거 응시 자체에 비중을 두었다. 과거는 양반의 전유물이자 신분적 상징이며, 과거 응시 자체의 상징적 의미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과거 응시는 신분적 불안의 심리적 해소를 위한 상징적 행위이며, 양반의 상징인 과거 응시만으로 상징적 위세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양반 신분을 획득하고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상징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회적 상징의 획득은 사족으로서의 신분 보장과 이해관계를 고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상징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교육경쟁에서 비롯된다. 교육은 사회적 상징 획득의 기초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사회적 상징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수단이 된다.

4. 결과주의적 교육경쟁

종법제 가족주의로 인한 문중의 발달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나타났다. 문중 간의 경쟁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암묵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 경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중의 지위를 확고히 해주는 가장 확실한 공적 증명서는 과거 합격증이었다. 따라서 문중의 궁극적 사회적 경쟁은 과거 경쟁에서 비롯된다. 문중의 입장에서 과거 합격증은 사회적 지위의 보증서이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높일 수 있는 증명서였다. 과거 합격은 개인과 가문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최고 목표였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교교육은 과거 합격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유교는 수신(修

身)을 통한 인(仁)의 실현보다 과거제를 위한 세속적 학문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제가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인종실록(仁宗實錄)에 의하면 지금 학생들이 사모하는 것은 과거 급제요, 바라는 것은 부귀이며 옛 사람의 공부하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고 헐뜯는다고 하였다(이원재, 2001, p. 85). 태종실록(太宗實錄)에서 사관(史官)이 말하길 문과를 통해 관리가 된 사람들은 대개가 배움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합격하면 곧 학업을 버린다고 하였다(이원호, 2002, p. 90).

유학 사상은 과거제를 통해 관료가 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 되었다. 과거 합격은 수신의 척도가 되며, 관료는 유교 학문의 척도가 된다. 과거 합격은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유학 교육의 목적은 오로지 과거 합격과 관련이 있었다. 과거 합격을 위해서 시험 내용의 요약집이나 모범 답안지에 의존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 유학 교육은 과거를 위한 과거, 시험을 위한 시험 그 자체였다. 즉 유학 교육은 그 근본인 경학(經學)을 읽지 않고 모범 답안지인 초집(抄集)만을 읽으며 과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수원은 유생(儒生)이란 명칭을 갖고서도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능히 읽는 자가 백분의 일밖에 되지 않으며, 그의 문리(文理)를 말한다면 해몽(解蒙)도 못할 자가 대부분이며 다만 유초(類抄)와 표절하는 기술만을 익힌 다음 과장에 출입하여 요행히 합격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한우근·이성무, 1991, p. 221).

당시의 이의현에 의하면 선비가 글을 연구하지 않고 암송과 제술만 일삼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예사이며, 명경과에 급제한 사람도 문학을 모르는 자가 많았으며, 선비가 적게 읽고서 오직 앞사람의 것을 표절하여 과명을 얻으므로 식견이 보잘것없고 학술은 가히 논할 것이 없다고 탄식하였다(이만규, 1991, p. 98). 이렇듯 조선 시대의 유학 공부는 과거에만 집중되었다. 이는 과거에 합격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결과주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았다. 유교 학문이 수신(修身)의 도(道)보다 과거 합격의 수단으로 인식된 것은 과거 합격이 가지는 높은 사회적 효과와 관련이 있었다. 과거 합격은 그 자체로서 개인과 가문의 명예를 보장하는 가장 합법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맹목적으로 과거 합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특히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가족주의가 도입되면서 더욱 극렬해지면서 과거의 부정행위가 노골적으로 표출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의 부정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다양한 형태로 자행됐다. 과거 합격은 문중의 사회적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성무(1994, pp. 226~227)에 의하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울 권세가의 자제들은 과장에 네, 다섯 명의 글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답안지를 쓰게 하며, 그 중에 제일 잘 된 것을 골라 제출하거나, 또는 글 잘하는 한 사람에게 답안지를 쓰게 하여 10여 명이 베껴서 내기도 하였다. 차술(借述)과 대술(代述)이 유행하자 글을 파는 매문업자가 많았으며, 시험장 근처에는 이러한 매문업자가

우글거렸으며 서울의 권세가 자제들은 시골의 글 잘 하는 사람을 사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결국 문중 간에 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적 결과만 중시하는 경쟁주의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원호(2002, p. 95)에 의하면 과거의 부정이나 험잡은 그 성격이 단독 범행이라고 할 우발적 형태도 있었으나, 집단적인 조직 범행도 자행됐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정실 관계에서 비롯된 것부터 안팎으로 계획적으로 출제 누설, 답안지 복사, 대리 응시, 고사장 소란, 사통(私通)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가리지 않고 동원된 것도 있었다고 한다.

과거의 부정행위에서 문중 중심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었으며,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자행됐다. 구체적으로 과거 시험에 수종을 데리고 들어가는 형태(隨從의 幣), 시험지를 빨리 내려는 험잡 형태(早呈), 책이나 커닝용 문서 등을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挾書), 대리 시험을 치는 형태(代述), 시험관과 짜고 특정인의 시험지를 알아보게 하거나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는 형태(赫蹄), 역서(易書)할 때 서리(書吏)를 매수하여 시험지의 내용을 고치게 하는 형태(易書用奸), 봉미관(封彌官)이나 서리를 매수하여 감합(勘合)할 때 합격자의 시험지에 자기의 피봉(皮封)을 바꿔치기 하는 형태(竊科), 시험장을 습격하여 시관(試官)을 구타하는 형태(科場亂動) 등이 있었다(이성무, 1994, pp. 223~224). 심지어 조좌호(1996, p. 339)에 의하면 커닝을 하려면 참고서를 세서(細書)하여 콧구멍에 넣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콧구멍을 의영고(義盈庫)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는 매우 다양하며, 노골적으로 전개됐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갈수록 과거의 부정행위는 문벌 가문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문벌 가문은 집권 세력으로서 관인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 정치·사회적 권력을 과거 합격에 집중하였다. 과거 합격은 문벌 가문 유지에 매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차장섭(1997, p. 102)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은 문벌이었다. 별열(閥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관인이었다. 관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별열로서 지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 입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과거를 통해 입사하는 것은 명분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승진도 빨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별열의 자제들은 별시 기간 동안, 서울의 여관을 미리 점령하여 시골의 유생들이 노숙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자행할 정도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과거 부정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따라서 유교교육의 목적은 손쉽게 과거에 합격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어 요약집이나 모범 답안지, 시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거 부정 역시 노골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됐다. 이러한 경향은 문중의 사회적 생명이 과거 합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합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주의적 사회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경쟁은 유교교육의 목적을 과거 합격의 결과만 중요시하게 하는 교육경쟁 형태와 결부된다.

따라서 당시의 교육경쟁은 결과주의적 사회경쟁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교육경쟁은 결과주의 형태를 띠게 된다. 요컨대 교육경쟁은 사회경쟁의 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IV. 글의 닫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그동안 긍정적 기여를 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가계에서 사교육비는 더욱 가중되고, 과외는 학교교육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도착증(倒錯症)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 교육 엑서더스 같은 다양한 교육적 언표들이 표출되어 한국 교육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교육적 차원을 넘어선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만, 전통적 교육문화의 맥락과도 무관하지가 않다. 특히 가족주의 교육문화는 한국 교육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인식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 교육문화에 대한 역사적이며, 심층적인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주의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는 사회 현상적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주의 교육문화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단지 그 형태만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사실 가족주의 교육문화는 역사적으로 조선 중기에 도입된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질서에서 비롯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초기까지는 양측적 친속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회질서 의식 체계에서 종법제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양측적 친속관계는 나 중심의 개인 관계에서 친속이 성립되지만, 종법제는 씨족 중심의 혈연에 의한 가문과 문중 중심의 친속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종법제 가족주의는 사회 전반의 질서 체계를 근본부터 변화시켰다. 사회관계 의식의 전반을 변화시킨 종법제 가족주의는 교육문화 형성에도 큰 분수령이 되었다.

종법제 가족주의가 도입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문중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사회경쟁이다. 개인은 문중의 부속물에 불과하고, 문중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개인의 위치가 규정됐다. 문중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생존권 차원의 경쟁을 촉진시켰다. 이 시기에 가묘와 서원 그리고 사우의 경쟁적 건립과 무분별한 족보 편찬이 이루어졌다.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서이다.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합법적이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과거 합격을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문중은 과거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문중의 유교교육은 수신(修身)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위한 과거, 시험을 위한 시험의 수단으로

전략하였다. 이 점은 과거 합격을 통해 문중의 사회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절박한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은 교육에서 비롯됐다. 교육은 사회경쟁의 기초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중은 과거 합격을 위해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경쟁은 종법제 가족주의가 초래한 문중의 사회경쟁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교육경쟁의 형태는 지위지향적 교육경쟁, 문벌주의적 교육경쟁, 상징주의적 교육경쟁, 결과주의적 교육경쟁을 띠게 된다. 이러한 교육경쟁 형태들은 외형상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경쟁 형태들은 교육이 사회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회적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효과 인식을 강화하는 역사적 계기가 된다. 교육은 신분과 지위 이동의 지표라는 사회적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교육이 가족의 사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서 오늘날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강창동, 2006). 단지 오늘날에 교육이 사회적 신분 이동의 지표라는 인식은 학력(學歷)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은 제도화된 가면인 학력이라는 이름으로 대치되어, 교육 출세주의는 학력 출세주의, 교육 신분주의는 학력 신분주의로 변했다(강창동, 2002). 따라서 교육경쟁은 학력경쟁으로 변모하여, 지위지향적 경쟁, 학벌주의적 경쟁, 상징주의적 경쟁, 결과주의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학력경쟁은 학력을 통한 가족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감수한 사교육비의 지출, 학력 집착으로 파생된 과도한 조기교육, 사회적 지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조기유학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교육적 행위는 학력(學歷)은 가족의 계급적 상징물이라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강화된 종법제적 가족주의의 교육문화는 오늘날 교육의 사회적 현상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다. 교육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신분 지위를 향상하려는 인식은 단지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에 일정한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환(1998). 주생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1 : 조선중기의 사회와 문화**. 서울: 탐구당 문화사.
- 강창동(2001). 조선조 종법제 가족주의와 교육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31(1), 한국교육학회, 109-135.
- 강창동(2001). 조선조 성리학과 교육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39(4), 한국교육학회, 1-18.
- 강창동(2002). **한국의 교육문화사**. 서울: 문음사.
- 강창동(2006). 한국 초등교육의 학력(學歷) 자본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제 26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101-123.
- 국사편찬위원회(1994). **한국사 23 : 조선초기의 정치 구조**. 서울: 탐구당문화사.
- 국사편찬위원회(1995). **한국사 34 : 조선후기의 사회**. 서울: 탐구당문화사.
- 국사편찬위원회(1996). **한국사 5 : 삼국의 정치와 사회 I - 고구려**. 서울: 탐구당문화사.
- 김성우(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서울: 역사비평사.
- 김용선(1999). 족보이전의 가계 기록. **한국사 시민강좌**, 제24집, 서울: 일조각
- 노명호(1988).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명호(1995). 가족제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 : 고려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서울: 탐구당문화사.
- 문숙자(2004).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 박용운(1980). **高麗時代 臺諫制度研究**. 서울: 일지사.
- 박홍갑(2001). **양반나라 조선나라**. 서울: 가람기획.
- 백승종(1999). 위조족보의 유행. **한국사 시민강좌**, 제24집, 서울: 일조각. 손인수(1999). **세종시대의 교육문화연구**. 서울: 문음사.
- 송찬식(1999). 족보의 간행. **한국사 시민강좌**, 제24집, 서울: 일조각.
- 신용하 편(1993). **社會史와 社會學**.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윤사순(2001). 양반의 정신세계. **한국사 시민강좌**, 제29집, 서울: 일조각.
- 이만규(1991). **조선교육사 I**. 서울: 거름.
- 이미숙(1994). 한국 가족의 교육열 과잉 현상과 관련 가치관.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자녀 교육열과 대학입시**. 서울: 하우.
- 이성무(1973). 十五世紀 兩班論 . **창작과 비평**, 8(2), 여름호, 통권 28호.
- 이성무(1976). 官職制度를 통해 본 朝鮮初期 兩班의 身分的 地位. **국민대학논문집**, 제11집.

- 이성무(1994). **한국의 과거제도**. 서울: 집문당.
- 이수건(1992).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역사학회 편. **한국친족제도연구**. 서울: 일조각
- 이수건(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영화(2000). **조선시대 조선사람들**. 서울: 가람기획.
- 이원재(2001). **과거 공부를 알아야 우리 교육이 보인다**. 서울: 문음사.
- 이원호(2002). **조선시대 교육의 연구**. 서울: 문음사.
- 이종서(2003). **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 親族關係**.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태진(1998). 조선왕조실록. **한국사 시민강좌**. 제23집. 서울: 일조각
- 이태진(1998). 자연재해, 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0 :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서울: 탐구당문화사.
- 정공식(2003). 종법제 제사 승계와 가족의 변화. 김귀옥 외. **한국사회사연구**. 서울: 나남 출판.
- 정두희(2001). 朝鮮前記 支配勢力의 形成과 變遷. 주돈보 외 4인. **韓國社會發展論**. 서울: 일조각.
- 정만조(1998).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1 : 조선중기의 사회와 문화**. 서울: 탐구당문화사.
- 정석종(1992). 朝鮮後期 社會變動研究. 서울: 일조각
- 정재결(1999). 교육사 연구와 교육입시학.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소식**.
- 조좌호(1996). **韓國科擧制度史研究**. 서울: 범우사.
- 지두헌(1998).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서울: 역사문화.
- 차장섭(1997). 朝鮮後期門閥研究. 서울: 일조각.
- 최봉영(1996).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I**. 서울: 느티나무.
- 최재석(1994). 가족주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5 :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서울: 탐구당문화사.
- 최재석(1996).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 일지사.
- 한우근, 이성무 편저(1991).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 朝鮮後期篇**. 서울: 일지사.
- 허홍식(1981). **高麗社會史研究**. 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 허홍식(1992). 高麗時代 夫妻形態와 그 變遷. 역사학회 편. **韓國親族制度研究**. 서울: 일조각.
- Deuchler, M. (2003).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이훈상 (역).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서울: 아카넷.
- Skocpol, T.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박영신 외 역(1991).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서울: 민영사.

• 논문 접수 : 2007년 4월 10일 / 수정본 접수 : 2007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7년 5월 25일

ABSTRACT

A Social Historical Study on the Clan Rules Familism and Educational Competition Traits in Choseon Dynasty

Chang-Dong Ka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e Clan rules familism have played an important part in forming the educational culture. The similar familism flow was supported from the Three Kingdoms to the early days of Choseon Dynasty, but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each period. the status between father and mother was almost equal. Also, there weren't almost difference between daughter and son, first born child and second, and the son of son and of daughter. The status system began to be unsettled because of the Japanese and Chinese invasion and climatic change. The Yangban introduced the Clan rules familism to support their status. The introduction of the Clan rules familism widely influenced on the social values, the rules, the custom as well as the essence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Clan rules familism resulted in the strengthening of the group sense focused on the family and clan. The competition with clans for making higher the social status was severe in the dimension of the right to live. The traditional method to raising the social status of the family was to make the bureaucrat by passing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So, each family spared no effort to make the educational investment for the successful candidate. The educational competition among clans was severely developed. In the result, the confucianism education of moral training fell to the worldly means for passing the exam. The educational competition for raising the social status of clans assumed an aspect of status-, family-, symbol-, result-focused figure.

Key Words : clan rules, familism, educational competition